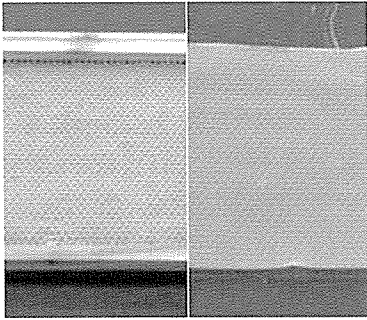




수입 ‘초읽기’ ... 양봉계 ‘촉각’



▶ 질병 전파의 위험성이 커 세계적으로 수입을 원천 금지하고 있는 소비(벌집)를 우리나라가 지정검역물로 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꿀벌의 집이 되는 소비(왼쪽)와 꿀벌이 소비를 만드는 데 기초가 되는 밀자리인 소초.

질병전파 위험커 전세계서 금지

질병 전파의 위험성이 커 세계적으로 수입을 원천 금지하고 있는 소비(벌집)를 우리나라가 지정검역물로 지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 수입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소비를 수입하는 유일한 국가가 될 전망이며, 응애류 등 병해충 유입으로 인해 양봉산업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소비를 지정검역물로 지정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 수입이 허용되는 소초(꿀벌이 소비를 만드는 데 기초가 되는 밀자리)와 수입이 금지된 소비를 구분하지 못한 때문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8월31일 검역원 대회의실에서 양봉농가 및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의 검역 기준과 방법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검역원은 국내 양봉산업 보호와 수입 소비 사용농가 및 수입업자 등의 민원 해결을 위해 소비를 지정검역물로 분류하는 등 검역 관련 기준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양봉농가 및 업계 관계자들은 부저병 등 질병 전파의 온상인 소비를 수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전기현 한국양봉협회장은 “그동안 소비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지만 이와 같은 자리가 마련돼 아쉽다”면서 “소비에 대한 지정검역물 분류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병수 경기대 교수는 “아직 소비 수입을 허용하는 국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질병 전파의 위험성 때문에 주와 주 사이에도 이동이 금지될 정도로 관리가 엄격하다”고 말했다.

특히 설명회에서 소비 검역 기준을 만든 검역원의 관계자가 양봉농가들에게 소비와 소초가

어떻게 다른지를 되묻는 웃지 못할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담당 공무원들의 무지는 검역원이 제시한 검역기준에도 그대로 나타났다. 질병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밀랍을 가공해 만든 소비(소초의 개념)의 검역 기준은 2.5megarads의 방사선 조사이다. 이에 반해 정작 질병 위험성이 높은 꿀벌이 직접 만든 소비의 수입조건에 제시된 소독사항을 보면 10kGy(킬로그레이-megarads보다 1,000배 낮은 수준)의 감마선 조사를 받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소비의 정밀검사 방법으로 제시된 우유검사 및 원인체동정 방식은 모두 80년대에 쓰였던 간이검사 방법으로 현재 쓰이지 않는 것들이어서 담당자의 소비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함을 뒷받침하고 있다.

고상훈 고려양봉원 대표는 “소초와 소비를 구분하지 못하는 담당자가 소비에 대한 검역 기준을 만들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1990년 꿀벌 수입 자유화 이후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소비로 인해 가시응애 등이 발생, 국내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준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06. 9. 6 / 농민신문 -

중국산 벌집수입에 양봉농가 불안 검역원 “수입 불가피...철저한 기준으로 피해 방지”

중국산 소비(일명 벌집)수입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양봉농가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양봉협회(회장 전기현) 관계자 및 양봉전문가 및 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 소비수입업자 등은 지난달 31일 검역원 대강당에서 소비 검역관련 토론회를 갖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소비 수입문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전기현 회장은 “현재 중국산 벌은 전염병을 옮길 가능성이 높아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그 벌이 분비물을 뿜어 만든 소비가 수입되고 있는 상황은 우리 가축방역 정책에 구멍이라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는 과거 중국가시응애의 유입으로 양봉산업의 큰 위기를 겪은 만큼 성급한 소비수입허용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소비수입 불가의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